

# 석유화학 가동률 감축 급속확산!

SK · 여천NCC · 호남, 에틸렌 생산 줄여 ... P-X · PTA도 감산 돌입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최대 공급처인 중국의 SARS 확산과 북핵 문제 등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감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삼성중합화학은 긴급경영이사회를 소집해 2003년 초 세웠던 경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상경영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2003년 1/4분기 경영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합화학은 2003년 하반기 중기 경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간 경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기업들이 잇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SK는 5월초부터 NCC 1기와 2기의 공급량을 20% 감산했고, 여천NCC는 PE 감산 영향으로 5월14일부터 에틸렌 생산량을 15% 감산하고 있으며, 호남석유화학도 에틸렌 수익악화에 따라 4월25일부터 NCC 가동률을 10% 줄여 가동하고 있다.

일본의 석유화학기업들도 NCC의 5-10% 감산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틸렌 생산능력이 48만톤인 마루젠은 에틸렌 공급량을 20% 줄이고 있고, 52만톤의 Tosoh는 5월15일부터 아예 가동을 중단했다.

에틸렌은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 모두 현 가격 수준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7월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셋째 주 극동아시아 거래가격 기준으로 톤당 325-340달러로 1주 전보다 2.5달러 상승했다.

한편, Polyester섬유 등 화학섬유의 원료가 되는 P-X는 KP케미칼이 5월15일까지 45일 동안 생산을 중단했고, 일본에서는 Nippon Petrochemical과 Idemitsu Petrochemical이 각각 P-X 생산을 20%와 30% 감축하고 있다.

TPA(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인 삼남석유화학도 40만톤 공장을 5월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가동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현대석유화학, 여천NCC, Idemitsu, Mitsui Chemicals, Showa Denka 등 한국 및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Spot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26>